

정신개혁의 필연성에 관한 연구

朱賢哲*

目次

I. 序論	
II. 정신과 개혁의 의미	
1. 정신(精神)	1. 무자기의 의미와 특성
2. 개혁(開闢)	2. 정신개혁의 의미와 특성
III. 한국신흥종교의 정신개혁사상	V. 정신개혁의 필연성
1. 원불교	1. 사회제도의 모순
2. 천도교	2. 종교 및 사상의 대립
IV. 대순사상의 무자기-정신개혁사상	3. 도덕의 부재(不在)
	VI. 結論

I. 서론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신적 위기는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병폐 속에 살고 있으면서 그 폐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사람들은 불안감과 우울증, 자기로부터의 소외, 주변으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진정한 위기의식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은 정신보다는 물질에 눈이 팔려 자신을 물건으로 변형시켰고 인간의 삶은 그 소유물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었다. 현대인이 말하는 지적(知的) 인간이란 정신적인 것(수도를 통한 인격완성)을 추구하는 인간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물질을 만들어 내는 과학기술)을 추구하는 인간이다. 현대인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망각하고 있다.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려는 생각, 즉 증권의 시세 등락과 상품의 매입 등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루소는 인간의 부질없는 욕심 때

* 문학 박사

문에 덕(德)없는 명예, 지혜 없는 이성, 행복 없는 쾌락만이 이 세상에 넘쳐난다고 절망하였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간은 물질과 쾌락의 노예로 전락해 가고 있다.

그렇다고 인류가 물질문명에 관심을 갖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 물질문명을 창조하고 사용하는 일은 인류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 다만 물질문명에 관심을 갖되 그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말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물질문명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위 물질만능주의가 인간의 본성을 훼손하고 도덕성과 인격을 마비시키는 데도 현대인은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그 함정에서 빠져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현대사회를 거대한 정신병동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현대인들이 정신을 잃고 물질적인 향락에 빠져 있다는 말이다. 현대는 정신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대임은 분명한 것 같다. 그 대전환은 인간본성을 회복하여 인간다운 인간이 되려는 건전한 정신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일종의 정신개벽(精神開闢)이다. 정신개벽은 내 자신의 정신을 정화(淨化)하여 남을 잘되게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상생(相生)의 정신이며, 인류평화와 지상낙원 건설을 위한 기본정신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정신개벽의 진정한 의미와 정신개벽을 해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 그리고 정신개벽의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Ⅱ. 정신과 개벽의 의미

1. 정신(精神)

일반적으로 정신(精神)이라는 말은 물질(物質)·육체(肉體)에 대립하는 것으로서, 마음(心)과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테면 유럽어 'psycho-'로 시작되는 복합어가 우리말로 '정신-'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심리-'라고 번역되어 어떤 일정한 원칙이 없다는 것은 그 두드러진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서양의 경우 정신과 마음을 구별하여 영어에서는 'spirit'와 'mind', 독일어에서는 'Geist'와 'Seele'로 표현한다. 전자(前者)가 인

간의 경우 집단적인 생명의 뜻, 즉 비교적 지적(知的)이고 의적(意的)인 다소 차원 높은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데 비하여, 후자(後者)는 인간의 정서적·감정적 측면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용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우리말의 경우도 정신과 마음이라는 말 사이에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고 그 말들이 각각 거쳐온 어의(語義)의 변천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양자(兩者)사이엔 본질적인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¹⁾

정신개벽(精神開關)을 이해하기 위한 정신(精神)의 개념은 서양적 관점보다는 동양의 도교적(道教的) 관점에서 그 가까운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도교에서 정신(精神)의 개념은 처음부터 형성된 것이 아니라, 정(精)과 신(神)이 서로 분리되어 각기 독자적인 의미를 갖고 사용되었다.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정(精)은 도(道)의 신묘한 작용으로부터 나오는 생명력을 의미하고 신(神)은 도(道)의 영묘불측한 작용이나 무위자연한 작용을 의미하여, 정과 신이 분리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장자에 이르러 정신이라는 개념은 합성어로서의 고유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장자』에서 정신에 대해 표현을 찾아보면, 먼저 천하편(天下篇)에 “홀로 천지의 정신과 오가며 만물을 멸시하지 않는다”²⁾고 하였고, 각의편(刻意篇)에서는 “정신은 사방으로 통하고 팔방으로 흘러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다. 위로는 하늘에 닿고 아래로는 땅에 도사린 채 만물을 화육(化育)시키지만 그 형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 이름을 동제(同帝: 天帝와 같은 작용을 하는 자)와 같다”³⁾라고 하여, 정신을 만물을 변화·육성시키는 도(道) 그 자체와 일치시키고 있다. 또 정신이란 소박하고 순수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소박(素朴)이란 잡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음을, 순수(純粹)란 그 정신이 조금도 일그러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속담에 ‘대중은 이득을 소중히 하고, 청렴한 선비는 이름을 소중히 하며, 현자(賢者)는 뜻을 존중하고, 성인(聖人)은 정신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 있듯이, 순수와 소박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달은 자가 진정한 성인(聖人)이라 할

1)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 (서울: 東亞出版社, 1983) 참조

2) 『莊子』, 「天下」

“獨與天地精神往來 而不敖倪於萬物”

3) 앞의 책, 「刻意」

“精神四達並流 無所不極 上際於天 下蟠於地 化育萬物 不可爲象 其名爲同帝”

수 있는 것이다.⁴⁾

천도편(天道篇)에서는 정신이란 고요한 마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천도편에 “하늘의 道에 밝고 성인의 道에 통달하며 제왕의 덕을 끌고루 알고 있는 자는 그 행위가 어리숙하고 고요하다. 성인의 고요함이란 고요함이 좋다고 해서 (역지로) 고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만물에 마음이 어지럽혀지지 않으므로 (저절로) 고요한 것이다. 물이 고요하면 밝은 빛은 수염이나 눈썹을 비칠 정도이고 평평하기가 수준기(水準器)에 꼭 들어맞아서 목공도 그것을 모범으로 삼는다. 물의 고요함조차도 이처럼 밝은데 하물며 정신인 성인 마음의 고요함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천지를 비쳐주는 거울이며 만물을 비쳐주는 거울이다. 대저 무심(無心)의 고요함으로 안정(安靜)을 지키고 그윽한 적막(寂寞)에 있으며 작위(作爲)가 없다는 것이야말로 천지 자연의 기준이며 도덕의 본질이다. 그래서 제왕이나 성인도 그 경지에 쉬는 것이다. 거기 쉬고 있으면 무심해지고, 무심해지면 충실해지며, 충실하면 잘 다스려진다. 무심하면 고요해지고, 고요하면 잘 움직이고, 잘 움직이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된다. 고요하면 작위가 없고, 작위가 없으면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즐거우면 걱정거리가 깃들 수 없으며, 수명(壽命)도 길어진다. 대저 무심의 고요함으로 안정을 지키고 그윽한 적막에 있으며 작위가 없다는 것이야말로 만물의 근본이다”⁵⁾라고 하였다. 정신(精神)은 성인 마음의 고요함이다. 정신은 무심(無心)의 고요함으로 안정(安靜)을 지키고 그윽한 적막(寂寞)에 있으며 작위(作爲)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천지 자연의 기준이며 도덕의 본질이다. 이렇게 장자의 정신(精神) 개념은 정(精)과 신(神)이 합성된 의미, 즉 도(道)의 생명력과 신묘함을 융합한 뜻을 지닌다. 이때 정신은 천도(天道)와 인간의 본심(本心)에 다같이 해당된다. 장자의 사상에서는 오히려 도(道)가 인간의 마음에 내재화되어 본성(本性)을 지칭하는 용례가 더 많다.

4) 앞의 책, 「刻意」 참조

5) 앞의 책, 「天道」

“明於天 通於聖 六通四辟於帝王之德者 其自爲也 昧然无不靜者矣 聖人之靜也 非曰靜也 善故靜也 萬物无足以饒心者故靜也 水靜則明燭鬚眉 平中准 大匠取法焉 而況聖人之心靜乎 天地之鑒也 萬物之鏡也 夫虛靜恬淡寂寞无爲者 天地之平 而道德之至 故帝王 聖人休焉 休則虛 虛則實 實者倫矣 虛則靜 靜則動 動則得矣 靜則无爲 无爲也 則任事者責矣 无爲則俞俞 俞俞者憂患不能處 年壽長矣 夫虛靜恬淡寂寞无爲者 萬物之本也”

현재 흔히 사용되는 정신개념이 주로 인간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은 장자에 게 나타난 내재적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⁶⁾

2. 개벽(開闢)

개벽(開闢)이란 천개지벽(天開地闢)의 준말로써, 천지(天地)가 열려 인간을 비롯한 만물(萬物)이 처음으로 나온 때를 말하는 것으로, 천지의 시초(始初)나 만물의 창조(創造)를 의미한다. 개벽이라는 말은 일찍이 중국에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중국의 『사기(史記)』인 삼황기(三皇記)에서부터 개벽이라는 말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벽이라는 말은 동학(東學)의 창시자인 최 제우(崔濟愚)에 의해 또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그는 이전의 우주창조의 개념을 혁신적(革新的)인 대변화(大變化)의 개념으로 바꾸어 활용했다. 그는 과거의 우주 창조로서 개벽을 선천개벽(先天開闢)이라 하고 혁신적 대변화로서의 개벽을 후천개벽(後天開闢)이라 불렀다. 선천(先天)과 후천(後天)이라는 말은 『주역』의 “先天而天弗違 後天而奉天時”⁷⁾와 그 소(疏)의 “若在天時之先行事 天乃在後不違 是天合大人也 若在天時之後行事 能奉順上天 是大人合天也”⁸⁾라 했다. 여기서 선천(先天)의 의미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것은 형이상적 본체 또는 현상 이전을 뜻한다. 그러나 복희(伏羲)의 역(易)에 대한 주석(註釋)중에 복희씨의 역(易)은 소성(小成)이므로 선천(先天)이라 하고 신농(神農)씨의 역(易)은 중성(中成)이므로 중천(中天)이라 하고 황제(皇帝)의 역(易)은 대성(大成)이므로 후천(後天)이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소성(小成)은 팔괘(八卦)를 이르고 중성(中成)은 중괘(中卦)를 이르며 대성(大成)은 비물치용(備物致用)을 이른다고 하였다.⁹⁾ 일반 세속에서 선천(先天)은 자기 몸 태어나기 이전을 말하기도 하

6) 원불교 사상연구원 編, 『원불교 수행론 연구』, 원불교 사상총서 5(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108쪽 참조

7) 『周易』, 乾卦

그 주석(註釋)에 의하면 “만일 천시에(天時)에 앞서서 행사(行事)하면 하늘이 이에 뒤에서 어기지 않으면 이것은 하늘이 대인(大人)에 합하는 길이요, 천시(天時)의 뒤에서 행사하면 능히 상천(上天)을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니 이것은 대인(大人)이 하늘에 합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8) 『辭海』

9) 앞의 책, 子集 290 참조

지만 개벽(開闢)과 함께 사용될 때의 선천(先天)의 의미는 다르다. 여기서 선천개벽(先天開闢)은 세계 조판이나 미개시대의 불충분한 개벽을 의미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 같다.¹⁰⁾

선천개벽(先天開闢)이 우주창조의 의미 또는 미개시대의 불충분한 개벽의 의미인데 반하여, 후천개벽(後天開闢)은 혁신적(革新的)인 대변화(大變化)를 의미한다. 최제우(崔濟愚)의 후천개벽사상(後天開闢思想)은 운수설(運數說)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는 「용담가(龍潭歌)」에서 “만고에 없는 무극대도(無極大道)를 여몽여각(如夢如覺) 그 사이에 득도(得道)하게 되었다. 기장(奇壯)하다 기장하다, 이 내 운수(運數) 기장하다. 하느님 하신 말씀 「개벽(開闢) 후 오만 년에 네가 또한 처음이로다. 나도 또한 개벽 이후 노이무공(勞而無功)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의(得意), 너희 집안 운수로다”, 이 말씀들은 후에, 마음속으로 홀로 기쁘고 또 자부(自負)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다. 어화 세상 사람들아, 무극지운(無極之運)이 닥쳐온 줄을 너희들은 어찌 알까보냐. 기장하다 기장하다, 이 내 운수 기장하다. 구미산수(龜尾山水) 좋은 승지(勝地) 무극대도(無極大道) 닦아내니, 오만 년의 운수로다”라고 했다. 이것은 세계의 새로운 시운(時運)과 그에 따른 인간의 사고 및 행동의 개벽을 의미한다. 동학(東學)의 후천개벽사상(後天開闢思想)은 정신개벽(精神開闢)과 물질개벽(物質開闢)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돈화(李敦化)에 의하면 정신개벽(精神開闢)·민족개벽(民族開闢)·사회개벽(社會開闢)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불교를 창시한 소태산(少太山)은 개교표어로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를 내세워 인간의 정신구제(精神救濟)를 주창했다. 그는 “근래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말세가 되어 영영 과멸밖에 길이 없다고 하나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노니, 성인의 자취가 끊어진지 오래고 정의 도덕이 희미하여졌으니 말세인 것은 사실이나, 이 세상이야말로 참으로 크게 문명한 도덕 세계일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은 묵은 세상의 끝이요, 새 세상의 처음이 되어, 시대의 앞길을 추측하기가 꼭 어려우나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추측하는 사람이야 어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리요”¹¹⁾라고 말했다. 그는

10) 圓光大學校 宗教問題研究所, 「圓佛教事典」(圓光大學校出版局, 1981) 참조

개벽(開闢)을 물질문명의 발달과 정신문명의 발달(天開: 정신문명, 즉 종교도덕문명의 발달, 지개(地開): 물질문명, 즉 과학문명의 발달)로 해석했다. 과학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물질은 개발되고 있으나 그 보다 더욱 발달되어야 할 정신은 황폐해 있으므로 두 문명을 병행하여 두루 발달시켜 낙원(樂園)을 건설하자는 것이다.¹²⁾

대순사상의 개벽(開闢)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자. 『전경』에 “선천개벽 이후부터 수한(水旱)과 난리의 겁재가 번갈아 끊임없이 이 세상을 진탕하여 왔으나(...).”¹³⁾라고 하여, 선천개벽(先天開闢) 이후의 우주의 혼돈상태와 인간의 참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때 선천개벽(先天開闢)에서 개벽(開闢)은 단지 우주만물이 처음 생성된다는 창조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대순사상에서 개벽(開闢)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선천(先天)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신으로의 변화와 이상적인 새로운 세계의 창조를 의미한다.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개벽(開闢)은 다른 종교와 사상(思想)에 비해 그 의미가 깊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개념은 대순사상의 정신개벽사상을 다루는 장(章)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Ⅲ. 한국신흥종교의 정신개벽사상

1. 원불교

소태산(少太山) 박 중빈(朴重彬, 1891-1943)은 원불교(圓佛敎)를 개교(開敎)한 동기로써 ‘물질(物質)이 개벽(開闢)되니 정신(精神)을 개벽(開闢)하자’는 표어를 내걸어 정신개벽(精神開闢)을 강조하고 있다. 소태산은 정신(精神)이란 “마음이 두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分別性)과 주착심(住着心)이 없는 경지”¹⁴⁾라 하여, 정신이 청정무구(淸淨無垢)한 본성(本性)임을 밝히고 있다. 분별성(分別性)이란 본성(本性)을 찾지 못한 마음이며, 주착심(住着心)이란 한 곳에 치우쳐 집착하는 마음이다. 분별성(分別性)과 주착심(住着心)이 없는 본

11) 大宗經, 展望品 19

12) 『圓佛敎事典』 참조

13) 『전경』, 공사 1장 36절

14) 正典, 三學 精神修養

연(本然)의 경지란 마음이 요란하지 않고 어리석지 않으며 그르치지 않은 경지이다.¹⁵⁾ 원불교에서의 정신이란 본성(本性)을 말하며, 정신개혁은 본성(本性)의 회복을 의미한다.

원불교에서는 정신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개교동기(開教動機)에 보면, “현하 과학의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물질을 사용하여야 할 사람의 정신은 점점 쇠약하고, 사람이 사용하여야 할 물질의 세력은 날로 융성하여, 쇠약한 정신을 항복 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게 하므로, 모든 사람이 도리어 저 물질의 노예생활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 생활에 어찌 파란 고해(波瀾苦海)가 없으리요”¹⁶⁾라 하였다. 그러므로 “정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물질의 세력을 항복 받아, 파란 고해의 일체 생령을 광대무량한 낙원(樂園)으로 인도하려 함이 그 동기니라”¹⁷⁾고 하였다. 원불교를 개교한 동기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과학문명과 이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정신문명의 침체를 개탄하고 하루속히 정신문명을 개발하여 고해(苦海)에 빠진 중생을 낙원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소태산이 과학문명을 도외시한 것은 아니다. 그는 정신과 물질이 병행하여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¹⁸⁾ 그는 “안으로 정신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 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에 병이 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문명만 되고 물질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에 병이 든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외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 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¹⁹⁾고 하였다.

이와 같이 원불교에서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

15) 正典, 日常修行의 要法 참조

16) 正典, 開教의 動機

17) 正典, 開教의 動機

18) 金洪喆, 『圓佛敎思想論考』(圓光大學校 出版局, 1980), 358쪽 참조

19) 大宗經, 敎義品 31

은 사실이지만 정신이 주체(主體)가 되어 물질을 선용(善用)해 쓰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과거 종교에서와 같이 정신 일변도의 수양생활을 지양하고 물질생활을 영위하면서 수도에 전념하자는 것이지 정신의 우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정신세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²⁰⁾ 그래서 정신을 개벽하자는 것이다. 정신개벽은 정신수양(精神修養)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정신수양은 정신개벽의 핵심이 된다. 원불교에서 수양(修養)은 “안으로 분별성(分別性)과 주착심(住着心)을 없이 하며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 두렷하고 고요한 정신(精神)을 양성함을 이룸”²¹⁾이라 하였다. 원불교는 정신수양의 목적에 대해서 “유정물(有情物)은 배우지 아니하되 근본적으로 알아지는 것과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최령한 사람은 보고 듣고 배우고 하여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이 다른 동물의 몇 배 이상이 되므로 그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을 취하자면 예의 염치와 공정한 법칙은 생각할 여유도 없이 자기에게 있는 권리와 기능과 무력을 다하여 욕심만 채우려 하다가 결국은 가패 신망도 하며, 번민 망상과 분심 초려로 자포자기의 염세증도 나며, 혹은 신경 쇠약자도 되며, 혹은 실진자도 되며, 혹은 극도에 들어가 자살하는 사람까지도 있게 되나니, 그런고로 천지 만엽으로 벌여 가는 이 욕심을 제거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어 자주력(自主力)을 양성하기 위하여 수양을 하자는 것이니라”²²⁾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신수양을 오랫동안 계속하면 정신이 철석같이 견고하여, 천만 경계를 응용할 때에 마음에 자주력(自主力)이 생겨 결국 수양력(修養力)을 얻게 된다.²³⁾ 이 경지가 정신개벽을 이룬 경지이다.

소태산은 정신개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지금 세상은 물질문명의 발전을 따라 사·농·공·상에 대한 화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 기구도 많이 화려하여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

20) 金洪喆, 같은 책, 359쪽 참조

21) 正典, 三學 精神修養

22) 正典, 三學 精神修養

23) 正典, 三學 精神修養 참조

게 근심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회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회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에 벌여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用心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善用)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질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²⁴⁾라고 하였다. 이것은 인간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정신개벽으로 모든 문명을 마음대로 부려씀으로써 지상낙원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2. 천도교

천도교(天道敎)의 후천개벽사상(後天開闢思想)은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에서 시작하여 그의 제자인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1827-1898)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 1861-1922)에 의해 발전되고 이 돈화(李敦化)에 이르러 더욱 철학적으로 체계화되었다. 수운의 선·후천(先後天) 개념은 천지창조이후 수운 자신의 득도(得道) 전까지를 선천(先天), 그 이후 오 만년을 후천(後天)으로 설정하고 있다. 수운과 해월이 후천개벽운도설(後天開闢運度說)을 주장하고, 의암은 후천개벽(後天開闢)을 인개벽(人開闢)과 물개벽(物開闢)으로 나누어 인개벽(人開闢)을 정신개벽(精神開闢), 물개벽(物開闢)을 육신개벽(肉身開闢)이라고 정의한다. 의암은 개벽이란 “썩은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기 위함이니 천지만물(天地萬物)의 개벽(開闢)은 공기(空氣)로써 하고 인생만사(人生萬事)의 개벽(開闢)은 정신(精神)으로

씨 하나니 너의 정신(精神)이 곧 천지(天地)의 공기(空氣)니라”²⁵⁾하였고, 또 “이제 그대들은 하지 못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각각 자기에게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차례의 일이니라”²⁶⁾고 하였다. 그는 모든 일은 인간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정신개벽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암은 정신개벽의 방법에 대해서 “정신(精神)을 개벽코자하면 먼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마음을 모실 侍字로 개벽(開關)하고, 스스로 높은 채하는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정할 定字로 개벽(開關)하고, 의심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개벽(開關)코자 하면 먼저 아득하고 망녕된 마음을 알 知字로 개벽(開關)하고, 아득하고 망녕된 마음을 개벽코자 하면 먼저 육신 관념을 성령(性靈)으로 개벽(開關)하라”²⁷⁾고 말했다. 또 그는 정신개벽이 된 상태에 대해서 “한번 개벽(開關)하면 희고 흰 어름눈의 깨끗함과 한울이 개이고 날이 맑은 빛깔과 산은 높고 물이 흐르는 바람과 한울의 구름봉우리 같이 고상한 그가 곧 참된 정신(精神)의 나이니 이 나는 한울이 기우러지고 땅이 꺼져도 기리 이와 같을 것이요, 바다가 마르고 돌이 녹아도 또한 이같은 것이라. 이 미옥한 세계개벽(世界開關)을 돌아보아 무슨 어려움이 있으리오”²⁸⁾라고 했다. 이것은 정신이 개벽되면 정신의 상태는 깨끗하고 맑고 청명하며, 높은 산봉우리 같이 고상하게 되어 항상 똑같은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 돈화는 수은의 후천개벽사상을 더욱 체계화하여, “후천(後天)은 신사회(新社會)를 의미한 말이요 개벽(開關)은 문화(文化)의 개조(改造)를 의미한 것이니 후천개벽(後天開關)은 신사회(新社會) 건설(建設)을 의미(意味)한다”²⁹⁾고 설명하였다. 그는 새로운 사회의 개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정신개벽(精神開關)·민족개벽(民族開關)·사회개벽(社會開關)의 3대 개벽설을 제시하고 있다.³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개벽(精神開關)

25) 義菴, 『天道教經典』 「人與物開關說」(天道教中央總部 刊行)

26) 앞의 책, 같은 곳

27) 앞의 책, 같은 곳

28) 앞의 책, 같은 곳

29) 李敦化, 『新人哲學』(天道教 中央總部 刊), 138-139쪽

30) 李敦化, 『開關方式과 三大開關』

이다. 그는 수은의 보국안민(輔國安民)·포덕천하(布德天下)의 사상과 아울러 먼저 개인의 정신개벽(精神開闢)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정신개벽은 일종의 사상개조(思想改造)를 의미하는 말인데, 수은이 '수아영부(受我靈符)하여 제인질병(濟人疾病)하라'고 한 구절은 정신개벽을 철저히 고조시킨 것이라 해석하였다. 정신개벽은 모든 개혁의 준비행위가 된다. 왜냐하면 정신개조(精神改造)와 환경개조(環境改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정신개벽을 해야만 다른 개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신개벽은 낡은 관념으로부터의 탈피와 개성의 혁명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몰인간적(沒人間的)인 사회제도와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고 편협한 모든 생각과 악덕을 버리고 인간본연의 자기위치를 찾아서 모든 이치와 모든 일을 올바르게 보고 관찰하여 부단한 수양과 나아가 올바른 생활태도, 성실한 행동을 요구한다. 최수은은 천도교를 창도(創道)할 때 먼저 영부(靈符)를 그려내고 영부심(靈符心)의 회복을 바랐고, 주문(呪文)을 지어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하게 하여 인간 각자의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랐다. 또 항상 마음을 닦고 기운을 바르게 하며 맑은 기운을 키워 새롭고 참다운 자아의 자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이 곧 정신개벽의 의미이며, 이 정신개벽으로 인간은 보다 건설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의 성장을 기한다. 이로 인하여 새로운 시대에 살아갈 새로운 인간형, 즉 신인간(新人間) 창조가 가능케 된다.³¹⁾

둘째, 민족개벽(民族開闢)이다. 민족개벽이란 민족의 문화와 생활 정도를 향상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즉 모든 이상(理想)과 주의(主義)의 과도기에 있어서 이는 최대의 준비적 기초가 되며 그러므로 이상세계를 실현함에 있어서 민족을 단위로 하고 먼저 민족개벽을 시작함이 사실상 정로(正路)가 된다고 이 돈화는 말한다.³²⁾ 그러나 그는 자기 민족이라는 편협한 입장의 민족개벽에 치중하는 것을 경계한다. 그는 "민족이라는 것은 인류주의의 입장으로 보든지 또는 사회주의의 의미로 본다면 근본적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³³⁾고 주장하였다. 각 민족이 자기의 민족만을 표준으로 삼고 다른 민족

31) 崔東熙·金用天 共著, 『天道教』(圓光大學校 宗教問題研究所, 1976), 263쪽 참조

32) 金洪喆, 같은 책, 350쪽 참조

33) 李敦化, 같은 책, 148쪽

은 배제 또는 무시한다면, 그 군국주의적 폐해는 그칠 날이 없고 세계평화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돈화는 수은이 주장하는 민족주의 내지는 민족개혁 사상이 그러한 민족적 이기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세계 내지는 인류주의의 실현을 위한 과도기에 있어서의 기초작업이며, 민족문화와 생활정도를 그러한 방향으로 향상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상임을 역설한다.³⁴⁾ 그래서 그는 수은의 민족개혁사상은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³⁵⁾ 첫째, 각 민족은 민족적 단위로 우선 민족적 행동을 얻고 점차로 민족과 민족의 차별을 유화케 하여 세계일가주의(世界一家主義)로 나아가는 것이 순서이다. 둘째, 인도주의에 근거를 둔 민족주의로서 제국주의나 군국주의를 주장하는 민족주의와는 그 유(類)를 달리하여야 한다. 셋째, 민족의 지위향상이다. 세계평화의 표준은 국가표준에서 민족표준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수은이 민족개혁을 외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수은의 개혁사상은 민족개혁 다음으로 사회개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셋째, 사회개혁(社會開關)이다. 사회개혁이란 이상의 낙원세계 건설을 의미한다. 이 돈화는 수은의 사회개혁을 당시 유행하던 유물론적 사회주의의 사회개조론과 비교하는 입장을 취한다. 사회주의가 이상세계의 건설을 위한 계급적 민중운동의 단결인 점에서 수은의 사회개혁 사상과 근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중심을 수운주의(水雲主義)는 유물적 경제문제에 두지 않고 인간(인격)에 두고 있으며, 경제문제는 어디까지나 인격적 생활에 대한 일단 계적 문제 또는 국부적 문제로 보는 점에서 서로 상이하다고 밝힌다.³⁶⁾ 결국 동학과 천도교에 이르는 수은의 개혁사상은 처음에는 후천개혁(後天開關)에 대한 예언적(豫言的)·종교적(宗教的) 성격을 띠었고, 후에는 이론을 갖춘 구체적 행동지표나 실천목표로 발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³⁷⁾

34) 柳炳德 編著, 『東學·天道教』(서울: 敎文社, 1993), 154쪽 참조

35) 李敦化, 같은 책, 153-156쪽 참조

36) 李敦化, 같은 책, 158쪽 참조

37) 柳炳德, 같은 책, 155쪽 참조

IV. 대순사상의 무자기-정신개벽사상

1. 무자기의 의미와 특성

대순사상의 무자기(無自欺)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무자기와 마음의 관계이고 또 하나는 무자기와 성(誠)의 관계이다. 무자기(無自欺)는 ‘자기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자기자신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자기는 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마음이란 인간의 의식(意識), 인식기능, 감정작용 등 인간의 내면적 심리작용과 상태를 총체적으로 지칭한 말이다.³⁸⁾ 마음의 개념을 육체와 관련하여 생각하면, 마음이란 인간의 행동기능을 주관하는 것이고 마음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몸이다.³⁹⁾ 즉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하여 만기(萬機)를 통솔하고 이용하는 것이다.⁴⁰⁾ 말은 마음의 외침이고 행실은 마음의 자취라고 하였듯이, 마음은 몸의 주인이기 때문에 몸의 기능인 말과 행실은 마음의 표현인 것이다. 곧 말과 행동이 바르다는 것은 마음이 바른 것이고, 말과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도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는 바른 마음과 바르지 못한 마음이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마음을 양심(良心)과 사심(私心)으로 구분한다. 양심(良心)은 천성 그대로의 본심(本心) 즉, 도심(道心)을 말하며, 사심(私心)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물욕에 의하여 발동하는 욕심을 의미한다. 본래 인성(人性)의 본질은 양심인데 인간이 사심에 사로잡혀 도리에 어긋난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⁴¹⁾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무자기는 사사로운 감정이나 물욕에 의해서 발동하는 욕심인 사심(私心)을 버리고 천성 그대로의 본심(本心)인 양심(良心)을 갖는 것이다. 즉 무자기는 인간 본성(本性)의 회복을 의미한다.

대순진리회 수칙(守則)에는 “무자기(無自欺)는 도인(道人)의 옥조(玉條)니, 양심(良心)을 속임과 흑세무민(惑世誣民)하는 언행(言行)과 비리괴려(非理乖

38) 劉文英, 「中國古代意識觀念的 產生和發展」(上海: 人民出版社, 1985), 25쪽 참조

39) 「대순진리회요람」, 15쪽 참조

40) 「대순지침」, 48쪽 참조

41) 「대순진리회요람」, 18-19쪽 참조

戾)를 엄금(嚴禁)함”⁴²⁾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무자기는 양심(良心)을 속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대순진리회 훈회(訓誨)의 첫 번째 항목인 “마음을 속이지 마라”⁴³⁾는 의미와 같다. 이렇게 대순사상에서 무자기를 강조하는 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罪惡)의 근원(根源)이 마음을 속이는 데서 기인(起因)하기 때문이다. 무자기는 인간 본성(本性)의 회복을 가능케 하며 모든 죄악을 근절(根絶)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다.⁴⁴⁾

무자기(無自欺)와 성(誠)의 관계를 살펴보자. 『대순지침』에 “성(誠)은 기심(欺心)이 없어야 한다”⁴⁵⁾고 하여, 성(誠)이란 속이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성(誠)은 무자기를 의미한다는 말이다. 무자기(無自欺)라는 용어는 다른 곳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대학』에서만 한 번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이른바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자기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無自欺)”⁴⁶⁾라고 하여, 성(誠)과 무자기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誠)이란 무엇인가? 『중용』에 “성(誠) 그 자체는 하늘의 도(道)요,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도(道)다”⁴⁷⁾라고 하여, 천도(天道)의 본질을 성(誠)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주자는 “성(誠)이라는 것은 진실하여 망령됨이 없는 것(眞實無妄)을 이르는 것이니 하늘의 이치(天理)가 본디 그러한 것이요, 성실해지려고 하는 것은 능히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지 아니하여 그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게 하고자 하는 것을 이르는 것이다. 사람의 일이 마땅히 그러한 것이다”⁴⁸⁾라고 하였다.

대순사상에서는 성(誠)을 “도(道)가 곧 나요, 내가 곧 道라는 경지에서 심령(心靈)을 통일하여 만화도제(萬化度濟)에 이바지할지니 마음은 일신(一身)

42) 『대순진리회요람』, 21쪽

43) 『대순진리회요람』, 19쪽

44) 『대순진리회요람』, 19쪽 참조

45) 『대순지침』, 54쪽 참조

46) 『大學章句』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47) 『中庸』, 20章

“誠者天之道也 誠之者人之道也 誠者不勉而中 不思而得 從容中道聖人也 誠之者擇善而固執之者也 博學之 審問之 慎思之 明辯之 篤行之”

48) 앞의 책, 같은 곳, 朱子註

“誠者眞實無妄之謂 天理之本然也 誠之者未能眞實之無妄也 而欲其眞實無妄之謂 人事之當然也”

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統率) 이용하나니, 그러므로 일신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調密)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룸이다⁴⁹⁾라고 정의하고 있다. 『중용』에서도 “그러므로 지극한 정성은 쉬는 것이 없는 것이다”⁵⁰⁾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주자는 “이미 헛되고 거짓이 없으면 스스로 간단(間斷)이 없는 것”⁵¹⁾이라고 해석하였다. 성(誠)은 진실성·일관성·지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성(誠)은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를 받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다.⁵²⁾

한편 『대학』에서 ‘그 뜻을 성실히 한다는 것은 자기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고 하여 무자기(無自欺)와 성(誠)과의 관련성을 언급한 후, “악(惡)을 미워하기를 악취(惡臭)를 미워하는 것과 같이 하며, 선(善)을 좋아하기를 호색(好色)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것을 일컬어 스스로 만족함이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君子)는 반드시 그 흠로를 삼가는 것이다. 소인(小人)이 한가로이 거(居)할 때에 불선(不善)한 짓을 하되 이르지 못하는 바가 없다가, 군자(君子)를 본 뒤에 겹연쩍게 그 불선(不善)함을 가리우고 선(善)함을 드러내나니, 남들이 자기를 보기를 자신의 폐부(肺腑)를 보듯이 할 것이니, 그렇다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이것을 일러, 중심(中心)에 성실하면 외면(外面)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반드시 그 흠로 있을 때를 삼가는 것이다”⁵³⁾라고 하였다. 이것은 혼자 있을 때라도 무자기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 내용이다. 대순사상의 관점에서 볼 때도 본래 인간은 마음을 속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전경』에 “천지의 귀(鬼)와 신(神)은 인간세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살핀다”⁵⁴⁾고 하였으니, 사람들은 어두운 곳에 혼

49) 『대순진리회요람』, 16쪽

50) 『中庸』, 26章, “故至誠無息”

51) 앞의 책, 같은 곳, 朱子註, “既無虛假 自無間斷”

52) 『대순지침』, 51-52쪽 참조

53) 『大學章句』

“所謂誠其意者 毋自欺也 如惡惡臭 如好好色 此之謂自謙 故君子 必慎其獨也 小人閒居 爲不善 無所不至 見君子而后 厭然揜其不善 而著其善 人之視己 如見其肺肝然 則何益矣 此謂 誠於中 形於外 故君子 必慎其獨也”

54) 『전경』, 공사 3장 40절

자 있어도 마음을 속여서는 안 된다(暗室欺心).⁵⁵⁾ 또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鬼神)에게 있어 추기(樞機)이며 문호(門戶)이며 도로(道路)이다. 추기를 열고 닫으며 문호를 들락날락하며 도로를 오고가는 것은 신(神)이다”⁵⁶⁾라고 하였다. 이렇게 귀신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으며 인간의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란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늘까지 속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며(自欺自棄), 마음을 속이는 것은 신(神)을 속이는 것이고(心欺神棄). 신을 속이는 것은 하늘을 속이는 것이 된다.⁵⁷⁾ 여기서 하늘은 곧 상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정신개벽의 의미와 특성

앞서 밝힌 대로 대순사상의 개벽사상(開闢思想)은 다른 종교나 사상에 비해 아주 심오하고 광범위하다. 원불교와 천도교의 개벽이 인간 중심적이라면, 대순사상은 인간을 중심으로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에 걸친 전(全) 우주적인 차원에서의 개벽이다. 『전경』에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상극이 인간지사를 지배하였으므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천·지·인(天地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 이 세상에 참혹한 재화가 생겨나니라”⁵⁸⁾고 하여, 삼계(三界)가 개벽되지 않은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벽은 상극의 세계에서 상생의 세계, 원한이 쌓인 세계에서 원한이 없는 세계, 천(天)·지(地)·인(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않는 세계에서 서로 통하는 세계, 참혹한 재화가 발생하는 세계에서 발생하지 않는 세계로의 변환을 의미한다. 또 상제께서는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

“大大細細天地鬼神垂察”

55) 『대순지침』, 28쪽 참조

56) 『전경』, 행록 3장 44절

“心也者鬼神之樞機也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出入門戶往來道路神”

57) 『대순지침』, 42쪽 참조

58) 『전경』, 예시 8절

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고 하노라”⁵⁹⁾라고 하셨다. 후천선경(後天仙境)의 세계는 삼계가 개혁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개혁은 천지의 도수가 정리되고 신명이 조화하고 만고의 원한이 풀린 상생(相生)의 세계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개혁은 새로운 세계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주로 인간 초월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를테면 위에서 언급한 천지도수의 정리나 신명을 조화시킨다거나 만고의 원한을 풀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닌 상제의 권위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상제께서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主宰)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리라”⁶⁰⁾고 하셨듯이, 상제는 삼계의 대권을 가진 주재자(主宰者)이다. 또 상제께서 “시속에 말하는 개혁장은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을 건지는 개혁장(開關長)을 말함이니라”⁶¹⁾ 하신 것은, 개혁의 주재자가 상제이심을 밝힌 것이다.

상제께서는 개혁공사(開關公事)를 단행하시면서,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 쓰려면 쓸 때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⁶²⁾고 말씀하셨다. 삼계공사란 천(天)·지(地)·인(人)의 삼계(三界)를 개혁하는 것이다. 이 개혁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모방하는 일이 아니고, 남에게서 계승받은 것도 아니다. 개혁은 오직 상제에 의해 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다.⁶³⁾ 이것은 개혁공사가 다른 종교나 사

59) 「전경」, 공사 1장 3절

60) 「전경」, 권지 1장 21절

61) 「전경」, 공사 1장 1절

62) 「전경」, 공사 1장 2절

63) 「전경」, 예시 5절 참조

상을 모방하거나 계승한 것이 아니라, 대순사상만의 독창성임을 강조한 것이다. 대순사상에서 개벽(開闢)은 ‘없는 것을 새로이 만든다’는 창조(創造)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의 성질을 올바르게 고친다’는 개조(改造), 그리고 ‘서로를 고르게 하여 통하게 한다’는 조화(調化)의 3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래서 개벽은 창조(創造)·개조(改造)·조화(調化)를 통해 우주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이상적인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의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개벽(開闢)은 주로 상제의 권능에 의해 인간 초월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정신개벽(精神開闢)만은 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인간의 자각(自覺)과 수도(修道)가 그 중심이 된다.

정신개벽(精神開闢)이란 ‘정신의 열림’을 말한다. 정신이 열렸다는 것은 본성(本性)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정신이 막혔다는 것은 인간이 사욕(私慾)에 사로잡혀 기질(氣質)에 치우침으로써 본성(本性)이 훼손된 상태이다. 그래서 정신개벽(精神開闢)은 사욕(私慾)에 의해 손상된 본성(本性)의 회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정신개벽(精神開闢)이란 인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혁신적 전환을 통해서 모순과 병폐의 상극적(相克的) 요소를 개혁하고,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향상·변화시켜 상생(相生)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정신(精神)의 회복을 의미한다.

대순사상의 정신개벽(精神開闢)은 원불교나 천도교와 마찬가지로 정신문명(精神文明)과 물질문명(物質文明)의 개벽(開闢)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원불교나 천도교에서의 정신개벽이 대개 이 점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대순사상은 상제에 대한 신앙과 그 진리에 따른 수도(修道)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 천도교의 이 돈화(李敦化)가 개벽을 정신개벽·민족개벽·사회개벽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민족개벽과 사회개벽은 본래 정신개벽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 근거로 정신개벽이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개벽을 말하며, 정신문명의 개벽이란 인간이나 인간사회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사회·민족·종교·사상 등의 무형적(無形的)인 것에 대한 개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순사상의 정신개벽(精神開闢)의 방법은 신앙적(信仰的)·정신수도적(精神修道的)·문명계발(文明啓發)의 차원에서 고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순사상의 정신개벽(精神開闢)의 방법은 첫째, 신앙적 차원으로서 우주의 절대자(絶對者)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대한 신앙심을 갖는 것이다. 우주의 절대자는 구천상제(九天上帝)이시며 구천상제는 천(天)·지(地)·인(人) 삼계(三界)의 대권을 가진 주재자(主宰者)이다. 상제께서는 “나는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서 천하를 대순하다가 삼계의 대권을 갖고 삼계를 개벽하여 선경을 열고 사멸에 빠진 세계 창생들을 건지려고 너의 동방에 순회하던 중 이 땅에 머문 것은 곧 참화 중에 묻힌 무명의 악소 민족을 먼저 도와서 만고에 쌓인 원을 풀어주려 하노라.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화이니라”⁶⁴⁾고 말씀하신 바 있다. 또 『전경』에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⁶⁵⁾고 하여, 개벽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다. 서신(西神)이란 상제의 명(命)을 받아 만물을 완성시키는 신(神)을 의미한다. 개벽이 되는 시점에서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참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지어다”⁶⁶⁾라고 하였다. 여기서 인간을 참된 자와 거짓된 자로 구분하여 전자(前者)는 영생하고 후자(後者)는 멸망한다고 하였다. 개벽은 인간을 참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은 개벽을 위해 참되어야 한다. 특히 복(福)을 구하는 자와 삶(生命)을 구하는 자는 힘쓰라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정신개벽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제를 진실로 신앙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상제께서 천(天)·지(地)·인(人)의 삼계(三界)를 개벽하셨지만, 개벽을 위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상제께서 우주의 절대자라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그를 믿고 그의 진리를 따르는 실천이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수도(精神修道的)를 통한 정신개벽(精神開闢)이다. 정신개벽이란

64) 『전경』, 권지 1장 11절

65) 『전경』, 예시 30절

66) 『전경』, 예시 30절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 본질을 회복하여 도통(道通)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그래서 정신개벽은 도통(道通)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도통(道通)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무자기(無自欺)를 근본(根本)으로 하여 인간(人間) 본래(本來)의 청정무구(淸淨無垢)한 본성(本性)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닦고 성품을 연마(鍊磨)하여 자기자신의 기질(氣質)을 단련(鍛鍊)하여 대순진리(大巡眞理)의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化)·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을 체인체득(體認體得)하기 위하여 힘써 닦아 정성(精誠)에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⁶⁷⁾ 이렇게 정신수도(精神修道)를 통해 정신개벽(精神開關)이 되면, 도통(道通)에 이르게 된다. 도통이 되면 삼계(三界)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고 우주 전체의 이치를 온갖 정성(精誠)을 다하여 깨달음으로써 어떤 것이든 가능하지 않은 일이 없게 된다.⁶⁸⁾

셋째, 문명의 계발(啓發)을 통한 정신개벽(精神開關)이다. 즉, 인간이 정신적인 활동을 통해 창조한 모든 제도와 문물을 개혁하는 것을 말한다. 정신문명은 인간의 가치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무형적(無形的)인 것, 즉 종교·사상·철학·정치와 사회제도 등을, 물질문명은 유형적(有形的)인 것, 즉 기계, 도구, 시설 등을 일컫는다. 이 문명의 개혁에 대해서는 정신개벽의 필연성을 다루는 장(章)에서 재론(再論)되기 때문에 뒤로 미루기로 한다.

V. 정신개벽의 필연성

대순사상에서 정신개벽(精神開關)이라는 말은 도주(道主)께서 처음 사용하셨다. 상제께서는 이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 용어에 대한 참뜻은 상제의 말씀 속에 이미 담겨져 있다. 상제께서는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

67) 「대순진리회요람」, 9쪽 참조

68) 「대순진리회요람」, 9쪽 참조

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문운(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 딴 것이라」 이르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역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서양(西洋) 대법국(大法國) 천계탑(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대순(大巡)하다가 이 동토(東土)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母岳山金山寺) 삼층전(三層殿) 미륵금불(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년을 지내다가 최 제우(崔濟愚)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환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갑자년(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⁶⁹⁾고 말씀하셨다. 상제께서 이 땅에 강세(降世)하시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서양문명의 오류에서 비롯되었다. 본래 서양문명은 천국의 모형을 모방한 것이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정신보다는 물질에 치우쳐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정복하려고 했다. 이러한 사욕(私慾) 때문에 서양문명은 천도(天道)와 인사(人事)의 상도(常道)를 무너뜨렸다. 그로 인해 천·지·인 삼계(三界)가 혼란에 휩싸이고 도(道)의 근원마저도 끊어지게 되었다. 이에 상제께서는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道)로 후천(後天)의 선경(仙境)을 세워서 인류를 구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⁷⁰⁾

위의 인용문은 인류가 정신개혁을 해야만 하는 필연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문명이 물질에 치우쳐서 삼계(三界)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서양인 이마두와 동양의 문명신(文明神) 그리고 지하신(地下神)의 도움으로 인류는 편리한 문명화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문명은 정신보다는 물질에 치우쳐서 오히려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였던 것이다. 다

69) 「전경」, 교운 1장 9절

70) 「전경」, 공사 1장 3절 참조

시 말해서 인류는 올바른 정신에서 모든 물질문명을 창조하고 그 문명을 선용(善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욕(私慾)에 눈이 멀어 정신보다는 물질에 치중함으로써 갖가지의 재화(災禍)와 병폐(病弊)를 낳았던 것이다. 이렇게 인류가 신명들이 베푼 물질문명을 겸손한 마음으로 선용(善用)하고, 물질보다는 정신적인 면에 치중했다라면 상극적(相克的)인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 정신개혁의 필연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신개혁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야만 하는 근거로 사회제도의 모순·종교 및 사상의 대립·도덕의 부재(不在)를 제시하였다.

1. 사회제도의 모순

상제께서 인간으로 활동했던 조선 말기의 시대적 상황은 민족적 존망의 위기와 민중생존의 절망적 체념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대내적(對內的)으로는 불평등(不平等)한 사회제도(社會制度), 즉 양반지배의 낡은 질서와 탐관오리들의 민중에 대한 가혹한 착취, 대외적(對外的)으로는 서구 및 주변 열강들의 압박으로 말미암아 민중들은 의지할 곳 없이 방황하였다. 상제께서 “유는 부유(腐儒)”⁷¹⁾라고 하셨듯이, 조선 말기의 상황은 유교중심(儒敎中心)의 사상에서 유래된 첨예화된 계층의 차별화(差別化)로 말미암아 그 병폐(病弊)는 이루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다. 유교는 인륜적(人倫的) 질서(秩序)를 중시한 결과 양반, 중서, 상인, 천인, 노비의 계급적(階級的) 구별, 적서(嫡庶)의 구별로 관리의 등용 제한, 직업의 선택이나 혼인, 거주 자유까지도 제한을 받았고 천인 이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았다.⁷²⁾ 특히 유교도덕(儒敎道德)은 비천자(卑賤者)가 존귀자(尊貴者)에게 복종하는 것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인간관계는 귀천(貴賤)과 존비(尊卑)의 관계에서 생각되고, 이에 관한 질서가 인간관계의 질서라고 보았다. 따라서 유교 질서는 존귀자, 권력자의 지위와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고, 그들의 요구를 당연시하는 것으로 효(孝)·충(忠) 곧 아버지와 임금의 자식과 신하에게 요구하는 것이 되었다.⁷³⁾

71) 「전경」, 교운 1장 6절

72) 문순태, 「恨의 이야기」, 「恨이란 무엇인가」(서울: 청노루, 1988), 153쪽

상제께서는 조선 말기의 사회제도가 불평등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인간 평등과 인간존중 정신에 입각하여 그 모순된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공사를 단행하셨다. 첫째, 반상(班常)과 적서(嫡庶)의 차별을 없앴다. 『전경』에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좋은 시대가 오리라”⁷⁴⁾고 하였고, 또 “상제께서 비천한 사람에게도 반드시 존대말을 쓰셨도다. 김 형렬은 자기 머슴 지 남식을 대하실 때마다 존대말을 쓰시는 상제를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러워 「이 사람은 저의 머슴이오니 말씀에 낮추시옵소서」하고 청하니라. 이에 상제께서 「그 사람은 그대의 머슴이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뇨. 이 시골에서는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말을 고치기 어려울 것이로되 다른 고을에 가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다 존경하라. 이후로는 적서의 명분과 반상의 구별이 없느니라」 일러주셨도다”⁷⁵⁾라고 하였다. 반상과 적서의 구별은 태어나면서부터 철저히 개인의 자유와 인격이 무시되는 철저한 차별정책이다. 그 당시 신분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학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더라도 관직에 나설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 남녀를 평등하게 해 주셨다. 『전경』에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⁷⁶⁾하고, “후천에서는 그 닻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⁷⁷⁾고 하였다. 또 ‘열녀불갱이부(烈女不更二夫)’라 하여, 열녀(烈女)는 두 번 남편을 갖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상제께서는 이러한 폐습적인 열녀관을 철폐하셨다. 『전경』에 “상부하여 순절하는 청춘과부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악독한 귀신이 무고히 인명을 살해하였도다」하시고

73) 尹泰林, 「韓國人」(서울: 玄岩社, 1970), 134쪽

74) 『전경』, 교법 1장 9절

75) 『전경』, 교법 1장 10절

76) 『전경』, 공사 1장 32절

“상제께서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文婦)」라 써서 불사르셨도다.”(교법 2장 57절) “「어찌 남장군만 있으랴. 여장군도 있도다」하시고 종이에 여장군(女將軍)이라 써서 불사르시니(…)”(권지 1장 17절)

77) 『전경』, 교법 1장 68절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 그 글은 이러하였도다. 忠孝烈 國之大綱然 國亡於忠 家亡於孝 身亡於烈”⁷⁸⁾라고 하였다. 현재 살아있는 남편에 대해서 정성을 다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남편이 죽은 후에도 지조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리거나, 죽을 때까지 개가치 못하는 것은 사회적 모순이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제도가 얼마나 불평등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죽어서 열녀(烈女)가 되거나 청춘과부가 수절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이 보내는 폐단을 고쳐 정식으로 개가케 하는 개혁공사를 하셨다.⁷⁹⁾ 이 세상에 열녀(烈女)는 있으나 열부(烈夫)는 없고, 남자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으나 여자는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혼할 수 없었다. 이렇게 조선 말기의 사회체제는 유교사상이 그 근저에 깔려 있었다. 유교(儒敎)는 남성위주(男性爲主)의 경제체제(經濟體制)를 바탕으로 남성중심의 윤리체계(倫理體系)를 확립시켜 부계 친족간의 유대를 강화하며, 갈등(葛藤)을 방지하기 위해 서열적(序列的) 인간관계를 강조하였다. 그래서 여성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보다는 한 집안의 대(代)를 이어 주는 후손을 위한 생산적 도구에 불과했다. 남성본위(男性本位)의 이혼, 과부의 재가금지(再嫁禁止) 등의 남존여비(男尊女卑)에서 비롯된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횡포는 여성으로 하여금 수많은 원한을 맺게 했다. 이에 상제께서는 남녀평등(男女平等)에 입각한 여성해원(女性解冤)의 개혁공사를 단행하여,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 여성들의 맺힌 원한을 풀어 주셨다.

조선사회는 유교적 집권적인 관인제도(官人制度)가 발달함에 따라 사회적 특수신분의 계급이 사회전체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행사했다. 민중과 국가의 공익보다는 개인이나 혈연, 지연 중심의 이익을 앞세운 이기적인 관념이 팽배하였다. 이러한 편협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체제 하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제도를 기대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그 당시 불합리하고 불평등한 사회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다고 대순사상이 기존의 모든 제도와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간이 만든 사회제도의 모순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78) 「전경」, 교법 1장 46절

79) 「전경」, 공사 2장 17절 참조

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회제도는 인간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고 인간 상호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제도가 일부의 편견과 사욕에 의해 만들어진다면 소외 계층의 반발로 사회질서가 혼란해질 것이고 그 힘이 커지면 국가의 존립 자체도 위기에 처할 것이다. 현대사회에서의 대부분의 사회적 동요나 소요는 새로 대두한 사회적 필요나 문제에 대해 기존제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요즈음 교육정년과 농민들의 추곡수매가 문제로 국내가 시끄럽다. 주요 정책들이 정쟁(政爭)의 대상이 되어 국가의 대계로서 중심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단간의 입장차이와 이해관계로 갈등이 고조되어 폭력사태로까지 발전한다. 한쪽에서는 집단이기주의라고도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당사자들의 정당한 주장이라고도 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가 추진하려던 정책이 당초의 계획에서 벗어나 갈광질광하여 사회적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양보하여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고, 상생(相生)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사회적 신뢰도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사회제도 중 사회복지제도(社會福祉制度)는 사회적 불신과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상생적(相生的)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도시화·핵가족화가 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란 물질적인 조건과 환경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심리적·정신적인 차원까지도 포함한다. 사회복지는 개인과 가족 및 사회제도의 결함이 개인의 발달과 문제해결을 저해할 때 유용하게 작용한다.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민족, 인종, 연령, 성(性), 교육수준, 경제·사회적 신분의 차이에 관계없이 한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는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때, 사회의 원조를 통하여 원만한 사회생활을 가능케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고, 사회 전체적으로는 사회 혼란을 방지하여 사회의 통합과 안정에 기여한다. 이전의 사회복지 는 생활능력이 없는 빈민,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가치 없는 인간으로 간주하여 자선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사회적인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하여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와서 사회복지의 인간존중정신에 입각하여 그들을 사회체계에 속해 적극적으로 동참시킴으로써 사회적 통합을 이룩해 가고 있다. 『전경』에 “이제 해원시대를 당하였으니 천한 사람에게 먼저 교를 전하리라”⁸⁰⁾고 한 것은, 천(賤)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모든 사회적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고 평등한 대우를 받아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지의 사회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고 상생(相生)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인간의 의지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정신이 바로 정신개혁이다.

2. 종교와 사상의 대립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느 종교나 모두 인간을 사랑하고 평화를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종교가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고 심지어 전쟁에 깊숙이 관여해 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현재도 중동지역에서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사이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팔레스타인 과격파의 자살폭탄 테러와 이스라엘의 보복공격으로 이 지역이 다시 전쟁의 화염에 휩싸였다. 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9월 11일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일대에서 벌인 사상 최악의 테러공격, 이로 인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대결에서 기독교권과 이슬람교의 대결로 확산(擴戰)되어 전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교간의 전쟁을 경험한 적은 없으나, 여러 종교가 뒤섞여 있는 상황에서 종교간의 불화와 대립은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간의 갈등 이외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적(思想的) 대립은 인류평화를 저해한 또 하나의 원인이다. 지금은 거의 지구상에서 공산주의가 사라져가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은 아직도 남·북한이 사상적(思想的) 대립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류가 전쟁종식을 통한 세계평화와 인권신장을 위

80) 『전경』, 교운 1장 32절

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교와 사상의 갈등으로 인한 불협화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장(章)에서는 종교와 사상의 갈등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과 인류평화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려고 한다. 대순사상에서 사상적(思想的) 갈등(葛藤)은 첫째, 지기(地氣)가 통일(統一)되지 않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전경』에 “지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투쟁하느니라”⁸¹⁾고 했다.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여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開闢)되고 선경(仙境)이 세워진다.⁸²⁾ 둘째, 사상적 갈등은 자기 민족 고유의 문화를 주장하고 다른 민족에게 강요함으로써 발생한다. 『전경』에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 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⁸³⁾고 하였다. 그래서 상제께서는 모든 도통신(道通神)과 문명신(文明神)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문화(文化)의 정수(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셨다.⁸⁴⁾ 이렇게 각 민족문화의 정수를 뽑아 통일한 문명은 후천 문명의 기초가 된다.⁸⁵⁾ 상제께서는 종교마다 종장(宗長)을 선출하여 종교의 갈등을 해소시켰다. 『전경』에 “선도(仙道)와 불도(佛道)와 유도(儒道)와 서도(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최 수운(崔水雲)을 선도(仙道)의 종장(宗長)으로, 진묵(震默)을 불교(佛敎)의 종장으로 주 회암(朱晦庵)을 유교(儒敎)의 종장(宗長)으로 이마두(利瑪竇)를 서도(西道)의 종장(宗長)으로 각각 세우노라”⁸⁶⁾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종교와 사상의 갈등과 반목은 주로 민족중심주의(民族中心主義)가 그 원인이다. 민족은 전 인류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그 구

81) 『전경』, 공사 3장 5절

82) 『전경』, 공사 3장 5절 참조

83) 『전경』, 교법 3장 23절

84) 『전경』, 예시 12절 참조

85) 『전경』, 교법 3장 23절 참조

86) 『전경』, 교운 1장 65절

성원인 민족들이 인류전체의 번영과 행복을 위하여 동조 노력할 때, 인류문화는 더욱 발전될 뿐 아니라 개개의 민족문화도 향상된다. 이 경우 어느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우월하고 또는 열등하다고 차별대우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회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양식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신의 문화적(文化的) 가치(價値)와 규범(規範)은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와는 다른 사회집단의 가치와 규범은 부도덕(不道德)하고 열등(劣等)한 것으로 간주하며 경멸(輕蔑)한다. 이와 같이 한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기네 문화가 옳은 것이며 가장 우수하다고 믿는 태도를, 민족중심주의(民族中心主義)라 부른다. 민족중심주의와 같은 사회적 편견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즉, 이러한 편견(偏見)은 사회와 사회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위문화(下位文化)를 갖는 모든 수준의 집단사이에 존재할 수 있다. 민족중심주의는 물론 편견이지만 집단의 결속과 유지를 위하여 다소간 민족중심주의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집단의 정체감(正體感)·일체감(一體感) 또는 자부심(自負心)같은 정상적인 의식은 민족중심주의에 의해 강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태도가 극단적인 현상을 나타낼 때 그 결과는 사악하고 추악한 것이 될 수 있다. 즉 극단적인 민족중심주의는 사회간의 분열을 조장하며, 다른 문화의 풍요함과 지식을 불필요한 것으로 거부하게 하며 폐쇄적인 태도를 만연케 한다. 이를테면 독일의 히틀러는 민족을 생물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아리아족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혈통을 가진 것이 게르만 민족이라고 주장하였다. 히틀러는 나치독일의 패권주의를 확립하는데 있어서 그 당시 유럽 각국에 잠재해 있던 반(反) 유대인 감정을 자극하여 그의 유대인 말살운동을 정당화하였다.

민족중심주의의 한 극단적인 예로서 문화적(文化的) 제국주의(帝國主義)를 들 수 있다. 문화적 제국주의란 한 집단이 그들의 문화를 다른 집단에게 강요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역사적 사례는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대의 그리이스나 로마는 그들이 정복한 광대한 지역에 자신들의 종교적 신앙과 경제제도를 강요하였고, 근대 유럽의 식민주의 세력은 식민지 주민(住民)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국(母國)으로부터의 문화이식(文化移植)을 감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흔히 미개사회를 문명화시킨다는 허울로 장식된 민족중심주의에 바탕을 두고 진행되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부 서구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행하였던 이교도(異教徒)의 기독교도화(基督教徒化) 운동도 민족중심주의적 사고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민족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이 합리화되어 저질러진 수많은 역사적 과오를 우리는 식민주의세력(植民地主義勢力)의 확장으로 점철된 근대사(近代史)에서 찾아볼 수 있다.⁸⁷⁾ 여기서 비롯된 또 하나의 병폐는 인종차별이다. 식민주의 세력은 그 대상이 주로 유색인종, 즉 흑인종, 황인종 갈색인종 등이었다. 지배민족은 자신들이 우월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인종들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선천적으로 열등한 인종이라고 단정했던 것이다. 불행스러운 사실은 현대에 있어서도 경제·군사적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문화적 유형(類型)을 다른 나라에 거의 강제로 이식(移植)하려는 사례가 흔히 발견되는 점이다. 문화적 제국주의 현상은 사회와 사회 사이에 있어서만 관찰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회 내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하위문화(下位文化)를 갖는 집단들 사이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 하위문화가 다른 하위문화에 대한 그들의 생활양식이나 가치를 강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사회적·정치적 권력을 가질 때 발생한다. 한 사회의 지배계층이 자기네가 선호하는 문화유형을 피지배계층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바로 좋은 예(例)이다.⁸⁸⁾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K. Jaspers)는 그의 저서 『역사의 기원과 목표』⁸⁹⁾에서 바람직한 미래관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반인륜적인 민족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첫째, 우리들이 미래사회에서 가져야 할 것은 자유의 실현이 으뜸인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세계의 통일, 신앙을 통한 세계인 공통의 대화 등 세 가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했다. 자유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3대 요인 중 그가 사회주의를 든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

87) 李璋鉉 外, 『社會學의 理解』 (서울: 法文社, 1983), 86-87쪽 참조

88) 앞의 책, 87쪽 참조

89) K. Jaspers, *Der Ursprung und Ziel der Geschichte*, 1949 (이 글의 번역·요약은 이태영, 『廣場』 「동구혁명과 유럽 민족주의의 向背」 (서울: 도서출판 주류 일념, 1991 가을·겨울호)를 참조하였음

한 종전의 소련식 사회주의가 아니고, 특권을 폐지하고 정의를 기준하여 노동수익의 폭넓은 분배를 조직화하자는 일반론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그는 마르크시즘 같은 '사회의 전체적 계획화'를 반대하는 동시에 이를 사회주의라고 보지도 않는다. 결국 그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사회적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자유시장경제 운영을 통해 획득한 대량의 수익을 폭넓게 분배하자는 것이다. 둘째, 세계의 통일이라는 것도 하나의 세계국가가 수립되어 인간을 속박하는 그러한 형태를 뜻한 것이 아니고, 평화애호어로 세계인의 심성(心性)이 계명되어 인간들이 통일된 정신생활을 위해 세계질서가 확립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의 제 민족 생활에서 모든 국가들의 국제협조가 진행되어 가되 평화 지향적인 통일된 인간의 정신세계가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정치형태로 본다면, 국제사회에서 제 국가가 절대적인 주권행사를 많이 자제하면서 새로이 통일되어 가는 세계질서의 수립을 위해 무수한 토의와 결의를 거듭해 가는 형태, 즉 '하나의 포괄적인 연방제'라고도 말할 수 있다. 셋째는 정신세계의 변혁을 꾀하는 입장으로서는 신앙을 중시한 점이다. 그가 말하는 신앙은 기성종교의 도그마에 충실하는 입장이 아니다. 니힐리즘(Nihilism)이나 마르크시즘 같은 환상에 바탕을 둔 사회적 종교도 반대하는 동시에 막연한 평화주의에도 반대한다. 다만 현대의 위기적 상황에서 비인간화를 막으면서 인간성을 회복해 가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근원을 자각하는 인간들의 상호 대화가 절실하다고 보았다. 이 인간상호의 대화과정에서는 그들이 그들 서로를 믿는 심성의 바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바로 신앙임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 야스퍼스의 이러한 미래관은 기계의 노예로 전락된 인간구제와 산업사회의 인간성 회복이 밝은 미래를 위한 구제책이라고 본 것이다.

3. 도덕의 부재(不在)

이 세상에 도덕(道德)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이기주의(利己主義)에 빠질 것이고 사회는 황폐해질 것이다. 사회는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이다. 진정한 도덕적 실천만이 건전하고 상생적(相生的)인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 불교에서는 자비(慈悲), 기독교에서는 박애(博愛) 정신을

주장하여 남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순사상에서는 인(仁)의 실천을 주장한다. 인(仁)의 실천은 반목과 불신의 상극적(相克的)인 사회를 화합과 신뢰의 상생적(相生的)인 사회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仁)의 실천에 의한 정신개벽으로서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 보려고 한다. 하나는 물질문명(物質文明)을 창조하고 사용하는 주체인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道理), 또 하나는 사회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道理)이다.

인간이 물질문명을 창조하고 사용함에 있어 사랑(仁)을 실천할 때, 인간은 진정으로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인류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근대 이후 인간의 물질에 대한 추구는 상당한 과학적 발전을 가져오게 했으나,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정신은 부패하고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되어 가고 있다. 정신(精神)이란 물질의 창조뿐만이 아니라 물질을 다루고 사용하는 주체이다. 그러나 인간이 사욕(私慾)에 사로 잡혀 물질을 창조하거나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그것을 악용(惡用)한다면, 인류에게 큰 피해를 주어 자신뿐만 아니라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다. 이를테면 원자핵 물리학의 선구자인 퀴리 부부가 방사능을 연구하여 의학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나, 인류평화와 세계복리를 위하여던 자신들의 취지와는 정반대로 나중에 방사능 연구가 폭탄제조에 응용됨으로써 인류를 위협하고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무기로 개발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이것은 창조 정신이 아무리 올바르게라도 그 사용정신이 바르지 못하면 인류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좋은 실례라 하겠다. 이렇게 정신이 주체가 되어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심각하게 표출된다. 또 아무리 탁월한 능력과 풍부한 학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정신이 바르지 못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더 나아가 인류에게 큰 해악을 입힐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서양문명은 주체가 되어야 할 정신보다는 물질에 치우쳐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삼계(三界)가 혼란하여 도(道)의 근원이 끊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정신개벽(精神開闢)이 되지 않으면, 인류의 교만을 극복하고 물질에 치우친 문명을 정신이 주체가 되는 문

명으로 전환시킬 수 없으며, 삼계(三界)가 조화되어 도(道)의 근원을 회복시킬 수 있는 희망도 가질 수 없다. 그렇다고 대순사상이 정신문명(精神文明)만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류가 정신문명보다는 물질문명에 치우침으로써 주객(主客)이 전도되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것이다. 대순사상은 정신문명뿐만이 아니라 물질문명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전경』에서 “상제께서 어느 날 경석에게 가라사대 「전에 네가 나의 말을 좇았으나 오늘은 내가 너의 말을 좇아서 공사를 처결하게 될 것인 바 묻는 대로 잘 생각하여 대답하라」 이르시고 「서양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나 견어야 옳으나」 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익이 될까 하나이다」 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이니라」 고 말씀하시고 또 상제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신 다음 공사로 결정하셨도다”⁹⁰⁾라고 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제께서 공사를 할 때, 비록 서양문명이 물질에 치우쳐 삼계를 혼란케 하여 도(道)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었으나, 그 서양의 문명이기(文明利器)를 없앤 것이 아니라 창생(蒼生)의 편익을 도모코자 그대로 두었던 것이다. 이것은 물질문명을 이용하는 사람이 물질에 치우치지 않고 정신을 바로 하여 사용하면 오히려 인간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대순사상의 근본적 취지는 물질문명을 추구하고 사용하되 전 인류를 위한 사랑(仁)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仁)은 자기와 타인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호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하며 상부상조하는 정신이 바탕이 되었을 때, 사회는 건전하고 사회질서는 바로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仁)은 인간생활의 도덕규범이 된다. 인(仁)은 모든 인간적인 관계를 원만하게 해주는 가장 함축적인 표현이다. 공자는 인(仁)이란 사람다움이며⁹¹⁾,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⁹²⁾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남을 잘되게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은 부모에게 효도(孝道)하고 형제간에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효도라는 것은

90) 『전경』, 공사 1장 35절

91) 『禮記』, 「表記」 “仁者人也”

92) 『論語』, 「顏淵」 참조

자신의 부모를 섬기는 데서 시작하면 이것이 효자(孝子)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금을 섬기면 충신(忠臣)이 되는 것이요, 이 충성(忠誠)과 효도(孝道)를 다 잘하면 마침내는 자신의 몸을 세워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효도하고서 어질지 않은 사람이 없고, 효도하고서 의롭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효도하고서 예의(禮義)가 없고 지혜가 없고 신용이 없는 자는 있을 수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임금을 섬긴다면 충성이 될 것이요, 이 마음으로 형을 섬기면 우애로운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이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린다면 사랑하는 것이 될 것이요, 어린아이를 돌본다면 인자한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가지 효도하는 마음이 서게 되면 만가지 착한 마음이 여기에 따라 저절로 생겨서 처음에는 자신의 몸을 보전하는 길이 된다고 말할 수 있고 다음으로는 자신의 몸을 세우는 길이 된다고 할 것이다. 또 효도란 하늘의 뿔뿔한 것과 땅의 뿔뿔한 것을 인간이 본받는 것이다.⁹³⁾

이렇게 인(仁)은 모든 도덕적인 것의 근본이 된다. 그러나 요즘 세태(世態)를 보면,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살해하거나 부모가 병이 들었다고 밖에 버리기도 한다. 또 형제간에는 부모가 물려준 유산의 상속문제로 다투다가 서로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부부의 이혼으로 인해서 자식이 버림받는 일도 종종 볼 수 있다. 스승이 제자를 학대하거나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고, 이와는 반대로 제자가 스승을 폭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 세상엔 부모는 있으되 부모다운 부모가 없고 자식은 있으되 자식다운 자식이 없고, 또 스승은 있으되 스승다운 스승이 없고 제자는 있으되 제자다운 제자는 없다고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에 해당되는 얘기이겠지만, 세상은 날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우리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천박해져 가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상제께서는 일찍이 부모와 임금과 스승의 은혜를 잊는 것을 무도(無道)라 한다. 세상에는 충(忠)이 없고, 효(孝)가 없고, 열(烈)없다. 이런 이유로 천하(天下)가 모두 병(病)에 걸렸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⁹⁴⁾ 이것은 현실세계가 도덕의 부재(不在)로 말미암아 완전

93) 「孝經」 참조

94) 「전경」, 행록 5장 38절 참조

히 인간성을 상실한 것으로, 정신개벽(精神開闢)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다. 정신개벽은 도덕적 완성을 의미한다. 인간은 수도(修道)를 통해 도덕적 완성을 이룰 수 있다. 『대순지침』에 수도(修道)는 인륜(人倫)을 바로 행하고 도덕을 밝혀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도통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⁹⁵⁾ 도통은 도덕적 완성이다. 수도(修道)의 목적(目的)은 도통이다. 도통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修道)를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경』에 “도를 닦은 자는 그 정혼이 굳게 뭉치기에 죽어도 흩어지지 않고 천상에 오르려니와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정혼이 희미하여 연기와 물거품이 삭듯 하리라”⁹⁶⁾라고 하였다. 여기서 도(道)를 닦는 자는 상제를 신앙(信仰)하고 도덕적 인간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한 복록(福祿)을 얻어 불로불사(不老不死)하여 영원한 선경(仙境)의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⁹⁷⁾

VI. 결론

인간은 삶의 행복이 자기자신의 마음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개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로 인해 현대문명은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빈곤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정신개벽(精神開闢)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타인이나 주변을 의지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을 정화(淨化)하고 현재 자신이 위치해 있는 곳에서 자신이 맡은 일에 양심(良心)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정신개벽이다. 더 나아가 정신개벽은 내 마음의 정화(淨化)가 타인의 귀감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남을 잘되게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개벽사상은 현실의 상극적(相克的) 요소를 극복하고 상생(相生)의 세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원불교나 천도교의 개벽사상은 인간 중심적인 개벽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 대순사상의 개벽사상은 인간 중심적이면서 천·지·

95) 『대순지침』, 37쪽 참조

96) 『전경』, 교법 2장 22절

97) 『전경』, 권지 1장 11절 참조

인 삼계(三界)에 걸친 전(全) 우주적인 개혁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순사상에서 개혁의 범위는 타종교사상에 비해 광범위하고 그 개념 또한 심오하다. 선·후천(先後天)의 개념에 있어서 원불교의 경우 소태산(少太山)은 당시의 사회를 묶은 세상의 끝, 즉 선천의 말기, 새 세상의 처음, 즉 후천개혁의 시초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태산은 자신을 중심으로 한 선·후천에 대한 표현은 없었다. 천도교의 경우 수은은 선·후천(先後天)의 개념을 천지창조이후 자신의 득도(得道) 전까지를 선천(先天), 그 이후 오 만년을 후천(後天)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대순사상에서는 상제께서 직접 선·후천의 개념 구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표현하시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천지개혁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기점으로 그 이전을 선천(先天), 그 이후를 후천(後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한다. 상제께서는 수은에게 제세대도(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나 수은이 대도(大道)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명과 신교(神敎)를 거두고 1871년 신미년(辛未年)에 강세하시어 1901년 신축년(辛丑年)부터 9년 동안 천지개혁공사를 하신 바 있다.⁹⁸⁾

정신개혁(精神開關)이란 인간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의 혁신적 전환을 통해서 모순과 병폐의 상극적(相克的) 요소를 개혁하고,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향상·변화시켜 상생(相生)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정신(精神)의 회복을 의미한다. 대순사상의 정신개혁(精神開關)이 정신문명(精神文明)과 물질문명(物質文明)의 개혁(開關)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원불교와 천도교에서 말하는 의미와 유사하다. 그러나 대순사상은 정신개혁에 있어 무자기(無自欺)를 정신수도의 근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상제에 대한 신앙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한편 천도교의 이 돈화(李敦化)가 개혁을 정신개혁·민족개혁·사회개혁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민족개혁과 사회개혁은 본래 정신개혁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로 정신개혁이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의 개혁을 말하며, 정신문명의 개혁이란 인간이나 인간사회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사회·민족·종교·사상 등의 무형적(無形的)인 것에 대한 개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대순사상의 정신개혁은 개혁이 되어야 하는 필연적 원인으로서는 사회제도

98) 「전경」, 교운 1장 9절 참조

의 모순·종교 및 사상의 대립·도덕의 부재(不在) 등을 제시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해원(解冤)과 상생(相生)의 원리에 따른 정신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또 정신개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서 상제에 대한 신앙심, 무자기(無自欺)를 바탕으로 한 정신수도(精神修道), 문명의 계발을 통한 도덕적 가치의 실현 등을 강조하고 있다. 대순진리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개벽(精神開闢)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인간개조(人間改造)를 통한 지상신선실현(地上神仙實現)과 세계개벽(世界開闢)을 통한 지상천국건설(地上天國建設)도 가능하다. 지상천국 즉, 후천선경(後天仙境)의 시대가 오면, 사회제도의 모순이 완전히 사라지고 종교 및 사상이 하나로 통일되며 도덕적 인간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참고문헌】

- 「전경」
「대순지침」
「대순진리회요람」
「論語」 「大學」 「中庸」
「周易」 「孝經」 「禮記」 「莊子」
「辭海」
「圓佛教全書」 「圓佛教事典」
「東亞原色世界大百科事典」 (서울: 東亞出版社, 1983)
義菴, 「天道教經典」 「人與物開關說」 (天道教中央總部 刊行)
李敦化, 「新人哲學」 (天道教 中央總部 刊)
金洪喆, 「圓佛教思想論考」 (圓光大學校 出版局, 1980)
문순태, 「恨의 이야기」, 「恨이란 무엇인가」 (서울: 청노루, 1988)
원불교 사상연구원 編, 「원불교 수행론 연구」, 원불교 사상총서 5(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劉文英, 「中國古代意識觀念的 產生和發展」 (上海: 人民出版社, 1985)
柳炳德 編著, 「東學·天道教」 (서울: 教文社, 1993)
尹泰林, 「韓國人」 (서울: 玄岩社, 1970)
李璋鉉 外, 「社會學의 理解」 (서울: 法文社, 1983)
이태영, 「廣場」 「동구혁명과 유럽 민족주의의 向背」 (서울: 도서출판 주
류 일념, 1991 가을·겨울호)
崔東熙·金用天 共著, 「天道教」 (圓光大學校 宗教問題研究所, 1976)
Jaspers, K., *Der Ursprung und Ziel der Geschichte*, 1949